- 사생결단 기도회 둘째 날 -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 )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우리는 지금과 죽기 전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장경철, "생애 최고의 선물" -

죄로 인해 ( )이 결정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이라는 ( )을 결정해 두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죽음"을 죄의 ( )으로 결정해 두셨을까? 묵상을 통해 얻은 유익과 위로가 있어 나눕니다.

1. 죄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길과 삶"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삶의 결국에도 죽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명과 꿈과 비전이 없어 헤매일 수 있는 것도 어려움이어서 삶의 노년을 고민하는 것도 모자라, 만약 죽음이라는 ( )이 없다면, 죄로 인해 타락한 삶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온갖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상처와 고통, 무차별 폭력과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럽히고 파멸하고 죽이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장치를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3.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 )가 또한 죽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죽는 것일까요? 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타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사람의 이성으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에,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 "오늘이 행복하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일도 행복하면 그 다음 날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할 것이다." - 법륜 스님 -
> "죽음이란 없다." - 전진 스님 -

> 로마서 6:23
>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즉
1.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2.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음이 진리이며,
3. 그렇게 창조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고,
4.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의 결과가 따르는 것이라면,

죽음이야말로 사람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지라며 미루어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를 풀지 않은 채로 다른 과제를 아무리 처리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아무도 죽음 이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자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1)
>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46)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 분을 닮은 사람이 그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하며 그 만물을 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만물 위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 창세기 1:28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사람은 단순히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창조적인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1.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의 역할이 아닌, 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함과 책임이라는 자발적, 의도적, 의지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그에 따른 열매, 결과, 즉 책임을 누리고,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기계적인 창조가 아닌 창조적인 창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켜야할 ( )이 제시됨으로써, 그 ( )이,

A. 창조주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B.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내고 따라야 하는 의도적, 의지적, 자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C.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 )이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지켜야할 ( )을 어김으로써 그 대가로,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이미 예고된 심판, 즉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즉, 죽음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들어온 ( )이었습니다.

> 로마서 5:12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로마서 5:18-19
>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